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주소 :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클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주소 :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8년 5월 13일 (제950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컬럼

가정

가정은 충전소다. 핸드폰의 배터리가 다 떨어졌을 때 충전을 해야 한다. 요즘은 급속 충전기가 나와 잠깐 동안에도 완충할 수 있다. 마치 가정이 이렇다. 사실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직장이나 생활전선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적다. 그러나 가정 안에서 빠른 회복, 빠른 충전이 있기에 일상이 이어질 수 있다. 또 발전소가 잘 돌아가야 불을 밝히고, 공장도 돌리고, 일상생활도 가능하듯, 가정이 잘 돌아가야 만사가 잘 돌아가게 된다. 즉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다. 가정은 백화점이다. 이것저것 사야 할 것이 많을 때 가장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는 곳이 백화점이다. 다 있기 때문이다. 가정이 그렇다. 사랑과 행복, 이해와 용서, 안식과 평안...이 모든 것이 가정에 있다. 그래서 돌아갈 가정이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가정은 왕궁이다. 비록 세상에서는 을(乙)이라 서럽고 고달프더라도, 직장에서는 아랫사람으로 늘 굽실거리며 눈치 보며 살더라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억울해도 참고 살더라도 적어도 가정에서는 갑(甲)이 될 수 있다. 가정 안에서만큼은 왕이요, 왕비요, 공주, 왕자다. 기 펴고 당당하게 자유를 누리고 권리를 누리는 곳, 그곳이 가정이다.

가정은 울타리다. 가정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내가 쉴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다. 슬플 때 위로해주고, 힘들 때 안아주고, 서러울 때 힘이 되는 곳이 가정이다. 병원에서는 치료할 수 없는 깊은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곳이 가정이다.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선물 아닐까.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그러나 굳이 가정의 달이 한정적일 필요가 있을까.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을 사랑하는 일은 변함없이 지속되어야 한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가정이 아름다워지면 된다. 아름다운 가정에서 아름다운 사람이 나오고, 행복한 가정에서 행복한 사람이 나오며,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사람이 나오고, 효자 집안에서 충신이 나니.

모두가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기도한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축구에서 골은 골대 안에 넣는 것이다. 세차게 차 넣건 굴려서 넣건 골대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골이다. 야구에서도 담장을 훌쩍 넘어가건 가까스로 넘어가건 공을 넘기기만 하면 홈런이다. 그러나 아무리 멀리 넘긴다 해도 파울라인을 벗어나면 소용없다. 탁구, 테니스, 골프, 좌우간 공으로 하는 스포츠의 규칙은 대동소이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힘이나 속도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할 바도 바로 이것이다.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우리의 빨리빨리 문화는 그동안 방향성보다는 속도에 방점을 두어왔다. 우리보다 수백 수십 년 앞서 민주주의와 복지 국가의 꿈을 이루고 있는 선진국들을 따

목사님은 항상 교회개혁의 방향성을 1세기 교회로의 환원이라 외치시곤 한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교회의 참모습이기 때문이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며 기사와 표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성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교회,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 간에 유무상통하며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이 찾아와 쉼을 얻는 교회, 병든 자가 치료 받고,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며, 억눌린 자들이 자유를 얻는 교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 있는 교회의 참모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신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

루어진 초대 예루살렘교회의 모습이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고전14:26).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통하여 가르친 교회의 모습이다.

교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들이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 특히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대형교회들이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도 올바른 방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기도의 불이 꺼지면 더 이상 하나님이 그 교회와 함께 하실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



기도가 떠남 자에겐 기대할 것이 없다

라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였다. 속도가 중시되다보니 그릇된 방향으로 인해 많은 희생과 시행착오도 감수해야 했다. 그리고 그 후유증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짐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는 올바른 방향설정을 위한 합의가 필요하고 진정 우리나라를 행복한 사회로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 또한 절실하다. 경제적 부만이 행복의 척도가 아님을 날이 갈수록 깨닫고 있기 때문이다. 갈수록 사회가 각박해져가고 인간성이 파괴해져가는 오늘, 바른 방향 설정은 사회 각 분야에 꼭 필요하고도 절실한 선결문제이다.

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행 2:42~47).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한번에 3천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나며 이

도께서 항상 유지했던 기도의 습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사56:7, 막 11:17)이라고 하신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5:17)는 사도 바울의 강권은 더 이상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는 교회의 생명과도 같은 말씀이다. 이 생명을 잃으니 교회가 능력이 없고,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못하니 밖에 버려져 밭에 밟히는 수모를 당하는 것이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 오늘날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 모두에게 강조되어야 할 생명의 지침이 아닐 수 없다.

한은택 목사

henry8829@naver.com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화곡동)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신6:4~15)



네 자신이 네 기업이란 꿈을 심어줘라

“자식은 여호와와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증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시 127:3~5).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기업이 잘 되면 기업주가 어깨에 힘 좀 주고 삽니다. 그러나 행여 부도라도 나면 기업주는 쇠고랑을 차고 철장신세가 됩니다. 자식이 잘 되면 목에 힘 좀 주고 살지만,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는 가시방석에 앉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이니라”(잠10:1). 기업이 잘 되려면 먼저 기업주가 바로 서야 합니다. 요즘 모 기업이 못매를 맞고 있습니다. 기업주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주인 부모가 바로 서야 기업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기업주는 확실한 기업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동일하게 부모가 분명한 신앙노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제가 이 시대 목사 집에 가훈을 판에 새겨주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24:15)는 말씀입니다. 이 가훈대로 이시대 목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면 그것을 본 자식들도 이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가 바른 신앙을 갖게 된 것이 외할머니와 어머니 덕분임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딤후1:5).

인천의 어느 장로 손녀가 골프유학을 갔습니다. 얼마 전 잠시 귀국한 손녀가 장로님 내외와 함께 저에게 인사를 왔는데 손녀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래 사셔야 해요. 제가 10년 후에 LPGA에서 우승하여 상금을 받으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드리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엄마 아빠가 효자구나. 그러니까 저런 말을 하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부모 자식 간을 두고 ‘붕어빵처럼 닮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틀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가 바로 서야 합니다.

불량품은 기업의 암이다

둘째, 기업이 잘 되려면 교육이 필요하듯 자식이 잘 되려면 교육이 필요합니다.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26%가 유대인들입니다. 특별히 노벨과학상 수상자의 60%가 유대인이고, 세계 유수대학의 교수 중 25%가 유대인이랍니다. 미국의 큰 빌딩이나 은행, 대형 백화점의 90%가 유대인 것이고, 세계 곡물시장이나 무기시장, 할리우드 영화계까지도 유대인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육의 힘

입니다. 교육이라 하면 우리나라도 그에 못지않는데 왜 우리는 그러지 못할까요? 교육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모국어도 못 하는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피아노를 가르치고, 태권도를 가르칠 때 유대인은 아이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

이 때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찌니라”(신 6:4~9). 아동교육 전문가들은 1~6세 사이에 인격의 85%가 형성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어릴 적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그 아이에게 이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가도 복, 들어와도 복, 손대는 것마다 복을 주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수고하지 않아도 거두게 되는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성공비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하고 양육하면 인격적으로도 완성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딤후3:16~17). 그

서 높아져도 갑질하지 않고 겸손하며, 남을 섬기고 베푸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셋째, 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직원들에게 ‘네가 이 회사의 주인이다. 네가 곧 기업이다.’라고 말해주고 그만한 대우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각자가 책임의식이 발동하게 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자식에게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말해줘야 합니다. 네 자신이 네 기업이란 꿈을 심어줘야 합니다. 기업의 가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이 네가 하기 나름이란 말로 힘을 주고 용기를

줘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 그렇게 합니까? ‘벌어먹을 놈, 누굴 닮아서

그렇게 명칭 하나?, 못난 놈...’ 등등 기를

파팍 켜는 말, 좌절하게 하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자식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제가 요즘 분재를 하고 있는데, 나무도 암에 걸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분재의 대가가 말하기를 나무도 뿌리를 자르고 가지를 잘라내고 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시를 내고, 그것이 계속 되면 나무도 암에 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년 정도 사랑으로 보살피면 가시가 떨어지고 부드러운 잎을 낸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백나무를 분재하면서 느꼈다니까요. 부드러운 진백을 손질했는데 손이 따가워서 보니까 가시가 있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받은 거지요.

여러분, 못난 자식도, 별 볼일 없는 자식도 힘을 주고 사랑을 주면 사람구실하게 됩니다. 본시 굵은 나무가 선산을 지키는 법입니다. 분재에서도 죽은 가지의 껍질을 벗겨 그 위에 유황석회를 칠하면 그것이 산가지지를 더욱 빛나게 하고, 분재

의 가치를 높이게 됩니다. 그러니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자들에게 자신감과 큰 꿈을 갖게 해주세요.

제가 30만원 주고 산 분재를 5시간 정도 다듬었더니 300만 원 정도 가치 있는 것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자식도 사랑으로, 격려로 가꾸면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사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면 기업주가 좋은 것 아닙니까?

교육부재(不在) 현상은 후진성을 탈피할 수 없다

그렇다고 그저 자식에게 오냐 오냐 해서 안 됩니다. 기업이 불량품을 내는데 가만 놔두면 기업 망합니다. 잘못된 것은 징계해야 합니다. 자식들이 잘못되었을 때 훈계하고 징계하고 초달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채찍이 천대(千代)를 기르는 법입니다. “초달을 차마 못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심히 징계하느니라”(잠13:24). 그러나 유의해야 할 것은 부모의 감정대로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훈계하고 징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엡6:4).

나무도 가지치기를 해야 크고 좋은 과실을 맺을 수 있고, 분재도 곡을 잡아줘야 아름답게 되어 값이 오르게 됩니다. 자식도 훈계해야 반듯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잠23:13~14).

사실 자식 농사만큼 힘든 게 없고,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자식입니다. 그러니 아직 백지와 같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분재도 어린 가지가 곡이 잘 잡힙니다. 록펠러의 어머니는 록펠러에게 십일조 생활을 할 것과 예배시간에는 맨 앞자리에 앉을 것과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 것을 교육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기업인 자식을 세계 최고의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내게 한시적으로 맡겨 주신 기업입니다.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최고 브랜드로 기업을 잘 되게 하시고 높이실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22:6). 할렐루야!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충심교회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 오늘의 메시지 ::

애국심(愛國心)

중국에 천자(天子)라는 황제가 조선에 지혜로운 선비가 많다는 소문을 듣고 중국 전역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를 뽑아 조선을 지혜로 평정하라는 명을 내린다. 그 소식을 들은 조선 조정에서는 중국사신을 영접할 자를 보내야 하는데 모두들 두려워하며 어느 누구하나 나서질 않는다. 하는 수 없어 평양감사를 보내 영접하라고 명을 내리지만 평양감사는 심히 고민하던 끝에 몸져눕게 된다. 이 소식을 들은 압록강 뱃사공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평양감사를 찾아와 자기가 영접하겠다고 허락을 받고 중국사신을 만난다. 중국사신은 뱃사공을 업신여겨 쫓아 보내려 하여 양손으로 원을 그리자 뱃사공은 손으로 네모를 나타낸다. 이에 눈이 휘둥그레진 사신이 이번에는 손가락 셋을 펴보이자 뱃사공은 손가락 다섯을 펴보이며 응수한다. 다시 놀란 사신이 이번에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품을 잡자 뱃사공은 배를 내밀며 손으로 두드린다. 이에 사신은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고 중국으로 돌아갔다. 중국황제 앞에 간사신이 말하기를 ‘천자시여, 다시는 조선을 업신여김으로 부끄럼을 당치 마소서.’라고 아뢰자 황제는 ‘왜 그런가?’하고 묻는다. 사신이 설명하기를 손으로 원을 그리며 ‘너는 하늘을 아는가?’ 물었더니 네모 모양을 하여 ‘나는 땅도 안다.’함에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다음엔 손가락 셋을 보이며 ‘삼강(三綱)을 아느냐?’ 물었더니 다섯을 펴 보이며 ‘오륜(五倫)도 안다.’

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염을 쓰다듬으며 ‘유비를 아는가?’ 하였더니 배를 두드리며 ‘제갈공명도 안다.’하여 황급히 돌아오게 되었나이다. 또 자세히 알아본즉 조선에는 그런 뱃사공이 오백이나 된다 하옵니다. 이 보고를 받은 중국황제는 조선왕에게 선물과 아름다운 글로 사례하였다. 한편 조선왕은 그 뱃사공을 불러 치하하고 경위를 듣게 된다. 뱃사공은 말하기를 ‘상감마마, 중국사신이 손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며 너는 동그란 떡을 먹었느냐고 물기에 네모난 떡을 먹었다고 대답하였고, 손가락으로 세 개 먹었느냐 하기에 다섯 개를 먹었다고 하였나이다. 또한 맛이 있었냐고 하기에 배까지 부르다고 하였나이다.’ 우리에게도 뱃사공과 같은 애국심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일념, 그리고 자랑스러운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염원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 간절한 소망을 품은 부르심 받은 자들의 명료한 태도는 더욱 하나님의 관심을 끌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경륜을 위해 각 개인과 교회를 부르심, 부족한 우리가 그 뜻에 합당한 한 구절이 될 수 있다면, 그 영광스런 페이지에 한 글자라도 남길 수 있다면..., 감히 오늘도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구속하심과 은혜를 바라고 구하며 간절히 나아간다.

신기류 목사

abba7777@naver.com

:: 성경에세이 ::

교회란?

여보게! 요즘 교회가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 그래서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일세. 자고로 교회는 주유소와 같네.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기름이 있어야 하지. 기름이 없는 자동차는 고철일 뿐이거든.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기름이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지.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네. 그러니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하지. 말씀이 없는 교회는 기름 없는 자동차와 같네. 세상의 지식을 논하고 전하는 교회는 기름 없는 자동차에 불과하다네. 또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 하셨네.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건물에 불과하지. 기도소리가 그쳐 잠잠한 교회는 사데교회처럼 이미 죽은 교회라네. 교회는 정비소라네. 차를 고쳐주는 곳이 정비소야닌가. 차에 이상이 있는데 정비소에 가지 않으면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듯, 교회에 나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회개해야 인생에 탈이 나지 않는 거라네. 교회는 세차장이라고도 할 수 있지. 요즘

미세먼지가 많아서 세차를 자주 하지 않으면 차가 엉망이지 않은가. 세상 속에서 살다보면 미세먼지만큼이나 더럽고 유해한 죄를 뒤집어쓰게 되지. 씻어내야 한다네. 교회에 와서 예수의 보혈로 말일세. 그래야 인생이 광이 난다네.

여보게!

하나님은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셨네. 왜 모이라고 하셨을까? 네 인생의 자동차에 기름을 넣고, 정비하고, 세차하라는 말씀이지. 그래야 천국까지 무사히 운행할 수 있거든. 그런데 주유소에 기름이 떨어지고, 정비소에 정비기사가 실력이 없고, 세차장에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이 주의 종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할 이유일세. 성도는 모이기에 힘써야 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의 종들은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애써야 한다네. 신앙생활은 닦고 조이고 기름 치는 것 아니겠나. 자네도 기름이 떨어지기 전에 기름을 채우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자주 세차하게나. 천국 가는 길에 차가 갑자기 멈추지 않도록!

朋友

작은 일에 충성하라

시카고 근교의 천체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찬드라 세카르 박사는 시카고 대학으로부터 겨울 방학동안 물리학 특강을 부탁받고 흔쾌히 승낙했다. 그런데 며칠 후 학교 측에서 등록 인원이 두 명 밖에 없어서 강의를 취소해야겠다는 연락이 왔다. 박사는 두 명도 상관없으니 강의를 하겠다고 하여 일주일에 두 번씩 하루도 빠짐없이 강의를 했다. 강의를 받은 중국계 미국인 리정다오와 양전닝 두 사람은 1957년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하고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상을 받게 된 결정적 이유는 찬드라 세카르 박사님의 열정적인 강의 덕분이었습니다.” 그 작 두 명이었지만 최선을 다했던 박사의 결과이다. “큰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답은 이렇다. “큰일은 반드시 작은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간단한 진리이지만 위인들은 모두 이 원칙을 지켰다. 목동으

로서 충성했던 다윗은 훗날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다. 아브라함은 25년, 야곱은 20년, 요셉은 13년의 세월을 인내로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정상자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 우리 목사님도 한사람을 놓고 온 열정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시더니 33년 만에 전국과 전 세계 70개국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나가고 계시지 않는가. 그리고 9차에 걸친 평화통일 기도성회는 4·27 남북 정상들의 만남을 통해 종전 선언과 함께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는 평화통일의 바람을 일으키지 않았던가? 이것은 진정 작은 것에 충성하는 우리 교단과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다(마25:21). 이렇게 삶의 위대함은 언제나 작은 일에서 출발한다.

김상욱 목사

ksw9669@hanmail.net



:: 생명의 말씀 ::

하나님의 큰 그림

전 세계로 생중계된 남북 두 정상들의 극적인 만남은 그 자체로 흥분과 감동이 었다. 이는 평화통일을 향한 순환의 메시지였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와 주변 열강들의 통치권자들을 향한 기도가 절실한 때이다. 왜냐하면 이 모든 권세자들을 세우신, 최상위의 권세자이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이기 때문이다. 세상 모든 권세의 원천은 하나님이다(롬13:1). 통치권자들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딤후2:1~2). 하나님께선 그분의 은혜로 역사와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이다. 이 세상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닿지 않는 곳은 없다.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추시는 빛! 다 거두지 아니하시고 타락한 세상에 남겨두신 ‘일반 은총’이 있기에, 법질서, 정부, 권세가 유지된다. 인과관계의 상식이 적용되는 일반 은총의 세상에서는 악인들도 잠시 형통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은총을 거두시면 중국으로 치닫게 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다. 멸망 받아 마땅한 진노의 자녀들을 극적으로 구속하신 새로운 변수,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하는 은총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 특별 은총의 세계는 세속적 가치가 전복되고, 역설적 진리가 작동하는 곳이다. 죽어야 살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말이다. 전 세계 유일무이한 분단국가로서의 긴장, 상처, 희생은 있었으나, 이로 인해 남한 땅은 뜨겁게 기도하는 영적 민족이 되었다.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결실을 맺어, 그 특별한 은총이 북녘 땅에 임할 때이다. 우리 민족은 20세기 초, 전 세계 영적 부흥운동의 물꼬를 튼 주인공이었다. 원산 부흥운동(1903), 평양 대부흥운동(1907), 백만인 구령운동(1909)으로 이어지는 영적 대부흥 운동의 자부심이 있는 민족이다. 하나님은 역사에 등장했던 탐욕의 제국들을 모조리 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 열강 속의 작은 민족 하나를 선택하셨고 결국 그 뜻을 성취하셨다. 북녘 땅의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그 열정, 그 큰 그림이 이 한반도 땅에도 다시 한 번 속히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기도한다.

송직화 목사

jesus_allinall@hanmail.net

끈대의 배려

예전 저희 팀에 대학을 막 졸업한 아이가 인턴으로 들어왔습니다. 저 역시 취업난을 겪었던 세대인지라 그 아이를 보면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저만의 방식으로 신경을 써주곤 했습니다. 하루는 대표님과 의 저녁식사가 잡혔는데 문득 저의 인턴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늘 윗분들과의 자리가 불편하고 곤욕스러웠습니다. 추억과 무용담이 오가는 자리에서 갓 들어온 저는 그 대화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고, 모르는 내용에 맞장구칠 녀살도 없어서 어색하게 겹돌 뿐이었습니다. 저희 팀 인턴에게는 그런 불편함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분명 우리만 아는, 우리에게만 재미있는 얘기들이 오갈 테니. 그래서 그녀에게 억지로 회식에 갈 필요 없다고, 가고 싶지 않으면 가지 않아도 된다고 일러주었습니다. 이젠 제가 인턴이었을 때 선배들에게 듣고 싶었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녀의 직속 사수였던 저의 동료가 무슨 일이 있어도 회식에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동료지만 그 행동은 마음에 들지 않았고 화도 조금 났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 점심을 먹고 커피를

:: From internet ::

어느 멋진 유언장

상속자가 없는 미국의 한 노인이 죽기 전 변호사를 불러 자신이 죽으면 새벽 4시에 장례를 치러 달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유서 한 통을 남기며 장례식이 끝나면 참석한 사람들 앞에서 뜯어달라 부탁했습니다.

마시다가 우연히 그 동료가 인턴 친구를 억지로 회식 자리에 가게 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턴일 때 취업이 간절해서 대표님이나 윗분들에게 얼굴도장이라도 찍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팀 선배들은 그를 회식에 데려가지 않았고 그게 속상했다고요. 그래서 자기 밑에 들어온 인턴에게는 작은 기회일지라도 놓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대표님과 함께하는 회식에 꼭 참석하게 했다는 거지요. 끈대라고 생각했던 그의 행동도 배려의 하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과거를 되돌아보니 저를 회식에 데리고 갔던 선배들 역시 어쩌면 저런 좋은 마음에서 한 행동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역지사지(易地思之).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고사성어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일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듣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역지사지는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이라면’이라는 가정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내 경험, 내 생각, 내 환경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나라면 저렇게 하지 않을 텐데’, ‘나라면 저렇게 말하지 않을 텐데’, ‘나라면 저렇게 생각하지 않을 텐데’,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 아무리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기 마련이지요. 저와 제 직장 동료는 인턴에게 했던 행동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똑같이 좋은 마음에서 시작한 배려인데, 행동은 정반대입니다. 그의 얘기를 듣지 않았다면 저는 그를 끈대라고 결론지었을 거고, 그는 저를 아랫사람에게 무관심한 사람이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살다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말하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대화하다 보면 의외로 내게 상처를 줬던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나 나쁜 의도에서 비롯된 게 아닐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너무나 다르지요. 말하는 방식뿐만이 아니라 배려하는 방식, 친근함을 표현하는 방식, 위로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 다른 방식에서 때론 오해가 발생합니다. 그 오해를 푸는 열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상대방의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신은혜
dopal0203@naver.com

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고루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유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한 네 사람은 10만 달러나 되는 많은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 유산으로 고인의 이름을 딴 도서관과 고아원을 건립하여 친구에게 보답했습니다. 당신이라면 과연 그 장례식에 참석하셨습니까?

:: 탐방소식 ::

지혜의 샘터를 찾아



지난 주일예배 후에 ‘지혜의 샘터’를 찾았다. 지혜의 샘터는 염상섭 장로가 경영하는 불펜제작회사이다. 이 지혜의 샘터가 최근 확장이전을 해서 총회장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렸다.

염상섭 장로는 현재 3부 성가대장을 맡아 충성봉사하고 있다. 불펜에 관하여는 전혀 문외한이었던 그는 오직 기도와 열정으로 오늘의 사업을 일궈냈다. 단돈 천원이 없어 울었던 가난을 딛고 오늘날 명품 불펜을 제작하는 명실 공히 세계적인 불펜회사가 된 것이다.

염상섭 장로는 목사님의 말씀에 ‘아니요’가 없다. 부도직전에 이르렀을 때 성가대장 직분을 내려놓고 싶었으나 목사님의 ‘계속하라’는 말씀을 듣고는 어려운 가운데도 성가대장의 직분을 성실히 수

행했다. 또한 구아나사가 와서 입이 돌아갔었는데 그 와중에도 목사님이 기도원 집회에 단에 올라 간증을 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목사님께 누가 된다며 사양했지만, 목사님이 간증하면 하나님이 네 입을 돌려주실 거라고 말씀하자 그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단에 올라 간증을 했다. 그 후 그의 입이 제자리로 돌아왔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목사님은 이 날 “세상을 살아가는데, 또한 사업을 하는데 지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런데 그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 하면 바로 정직함에서 온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고 했다. 사업을 할 때나 사람을 대할 때 정직하면 하나님이 네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물건을 파는 기업이 아니라 정직과 진실을 파는 기업이 되라. 또한 사람은 자고로 의리가 있어야 한다. 돈 몇 푼 때문에 의리를 저버리는 자가 되지 마라.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처럼 처음 것을 끝까지 잡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만큼 사업체가 커졌으

니 이제는 남도 배려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라. 직원들의 복지에도 신경을 써서 진정 하나님의 사랑임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하나 있다. 거짓 말이다. 그래서 그분은 약속을 기업으로 주셨고, 당신 스스로 맹세하셨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우선으로 살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약속대로 그 말씀이 염상섭 장로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어디 염상섭 장로에게 뿐이라. 이를 행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이뤄질 것이다.

부디 지혜의 샘터가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발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업.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기업이 되기를 바란다.

“종이 왔다간 자국이 남게 하소서.” 목사님이 이 기도가 이뤄지기를 기도한다.

기자 신묘수
jesus7857@gmail.com

당황하셨나요?

못 마친 학업을 위해 결혼 직후 첫 직장을 퇴사하고 다시 유학길에 올랐다. 유학 후 한국에 돌아와 입사한 두 번째 직장은 꽤 괜찮았다. 급여가 그리 높진 않았지만, 한국 사회에서 흔하지 않은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로 갈퇴근도 가능했고 집에서 가까운 곳이었다. 출산이 임박한 아내를 돌볼 시간적 여유가 필요했던 나에게는 안성맞춤이었다. 그러다 이직한 세 번째 직장은 더욱 괜찮았다. 아이가 커감에 따라 물질이 더 필요했는데 급여가 높아져 딱 알맞았다.

웁기는 직장마다 더 좋은 곳을 경험하니 나중에는 욕심이 생겼다. ‘이번엔 하나님께서 신의 직장을 주시리라!’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이직을 위해 야심차게 퇴사를 했다. 그러나 생각처럼 빨리 직장이 구해지지 않아 금식기도도 했고, 때마침 기도원 집회기간이어서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참석하여 작정기도도 했다. 역시나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주셔서 결국 오라는 곳이 나타났다.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신의 직장을 기대하며 네 번째 직장에 들어왔는데... 지옥을 경험했다고 해야 하나? 많이 당황했다. 아니 기도 응답을 받고 왔는데 어찌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단 말인가! 너무 괴로워서 기도하면 눈물만 났고, 한숨만 절로 나왔다. 우여곡절 끝에 지금은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이전 세 번째 직장에 다시 돌아와 감사함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사실 내 인생 최악의 직장이 금식기도와 작정기도, 그리고 예배 때 받은 응답으로 들어간 곳이어서 정말 많이 당황했었는데, 지금이야 돌이켜보며 깨닫는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실 때는 당시 내가 원하는 응답보다 내게 필요한 응답을 먼저 주심을,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심을.

만약 지금의 내가 이전에 ‘기도하고 받은 응답대로 행동했는데 도대체 왜 이러지?’라고 당황하며 번민하고 있던 과거의 나에게 격려 한마디 전해줄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해줄 것 같다. 그렇게 보이진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되고 있으니 너무 낙심 말고 조금만 더 힘내서 버티라고.

박천영
post.naver.com/imsofriendly



네 집 내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시편 128편 3절)

안락한 가정은
행복의 근원이다